

# 아르헨티나 출판 시장과 한국 문학 출간 동향

2024년 03호



# 아르헨티나 출판 시장과 한국 문학 출간 동향

2024년 11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 이슈	<p>▶ 아르헨티나 출판 시장과 한국문학 출간 동향에 대한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르헨티나에서의 한국 문학 출간 동향</li><li>• 아르헨티나 출판 시장 현황</li><li>• 분야별 출간 현황</li><li>• 번역서 출간 동향</li><li>• 종이책과 전자책 제작 현황</li><li>• 출판계의 새로운 추세: 오디오북</li><li>• 아르헨티나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의 장르</li><li>•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3년 보고서 중 아르헨티나 관련 내용</li><li>•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아르헨티나 현지 반응</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르헨티나</li><li>▶ 도서출판 시장</li><li>▶ 한국문학</li><li>▶ 문학 시장</li></ul>
인터뷰	<p>▶ Hwarang Editorial 대표 Nicolás Braessas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문학</li><li>▶ 번역</li><li>▶ 출판사</li></ul>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르헨티나 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4.11.13



## 아르헨티나 출판시장과 한국문학 출간 동향('23~'24년 기준)

### 순서

1. 아르헨티나에서의 한국 문학 출간 동향
2. 헨티나 출판 시장 현황
3. 분야별 출간 현황
4. 번역서 출간 동향
5. 종이책과 전자책 제작 현황
6. 출판계의 새로운 추세: 오디오북
7. 아르헨티나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의 장르
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3년 보고서 중 아르헨티나 관련 내용
9.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아르헨티나 현지 반응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 1 아르헨티나에서의 한국 문학 출간 동향 >>>

- 2023 년과 2024 년에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작품 번역 지원 사업을 통해 아르헨티나 출판사에서 발행한 한국문학 작품은 총 10 종이다. 이 중 9 종이 Hwarang Editorial 에서 출간하였으며 나머지 1 종은 Editorial Fiordo 에서 발행되었다. 또한 이 중 6 종이 아르헨티나판에서 스페인판으로 개정되어 스페인에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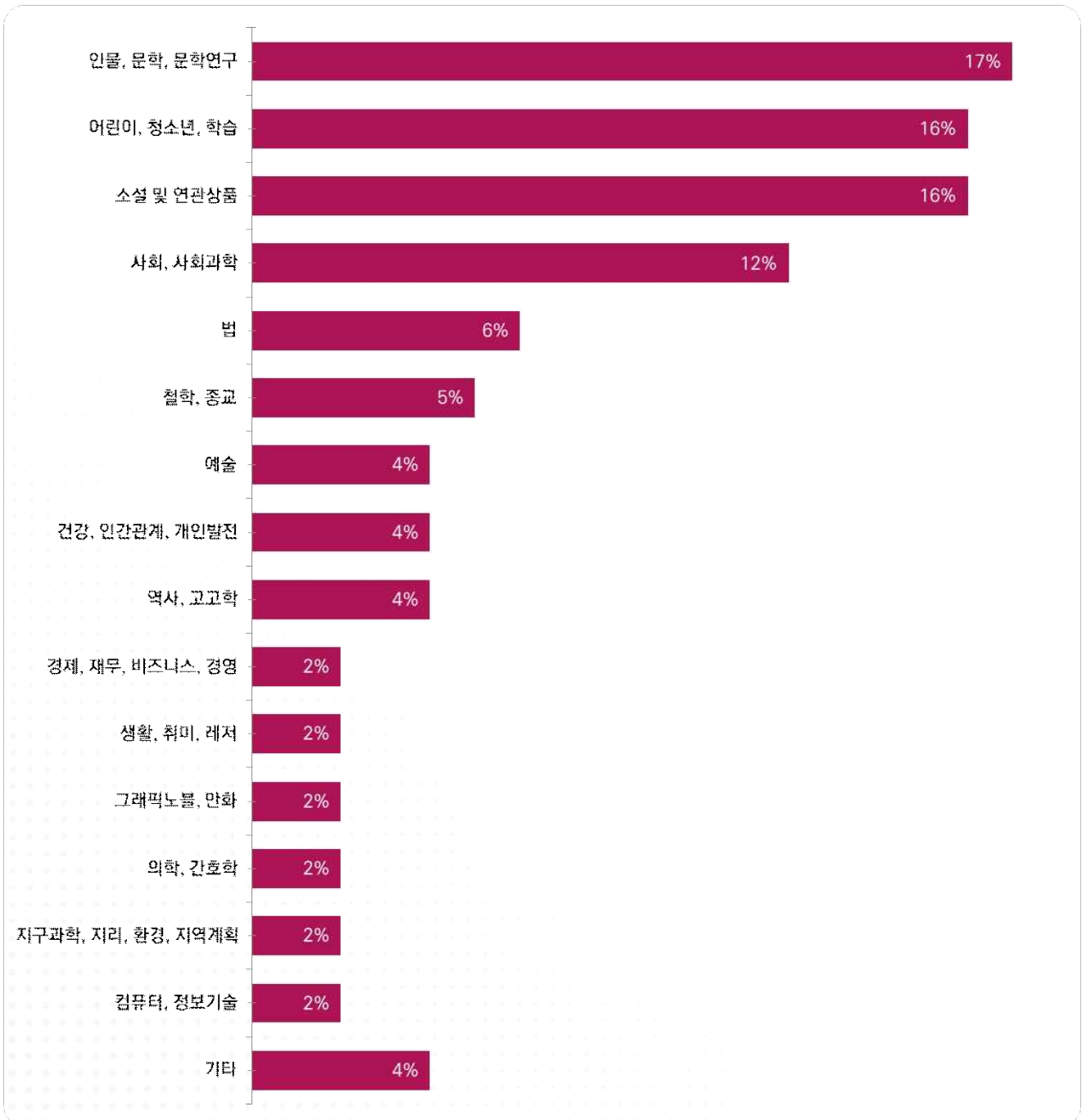
### 2 아르헨티나 출판 시장 현황 >>>

- 2023 년 아르헨티나의 신간 발행 종수는 전체 34,002 종(종이책 24,690 종, 전자책 9,312 종)으로 전년도에 비해 경미한 하락세를 보였다. 종이책 24,690 종의 초판 1쇄 전체 발행 부수는 47,988,761 부로, 2022 년보다 24% 감소하였으며 2018 년의 통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 아르헨티나 도서 협회(La Cámara Argentina del Libro)가 2024 년 4 월에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2023 년의 출판 시장 성장률은 지난 4 년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출판 종수 중 55%가 la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CABA,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행되었으며 18%가 la provincia de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주), 9%가 la provincia de Santa Fe (산타페주), 4%가 la provincia de Córdoba(코르도바주)에서 제작되었고 그 외 지방에서 나머지 14%가 출간되었다.

### 3 분야별 출간 현황



- 스페인어권의 ISBN 기구는 에디터(EDItEUR<sup>1</sup>)에서 제시하는 국제 규약에 따라 국제 도서 분류 기준인 ‘테마(Thema)<sup>2</sup>’를 사용한다. 지난 7년간 가장 많이 출간된 분야는 ‘인물, 문학, 문학연구’이고 ‘어린이, 청소년, 학습’과 ‘소설 및 연관상품’이 뒤를 잇는다.



[그림 1] 2023년 분야별 출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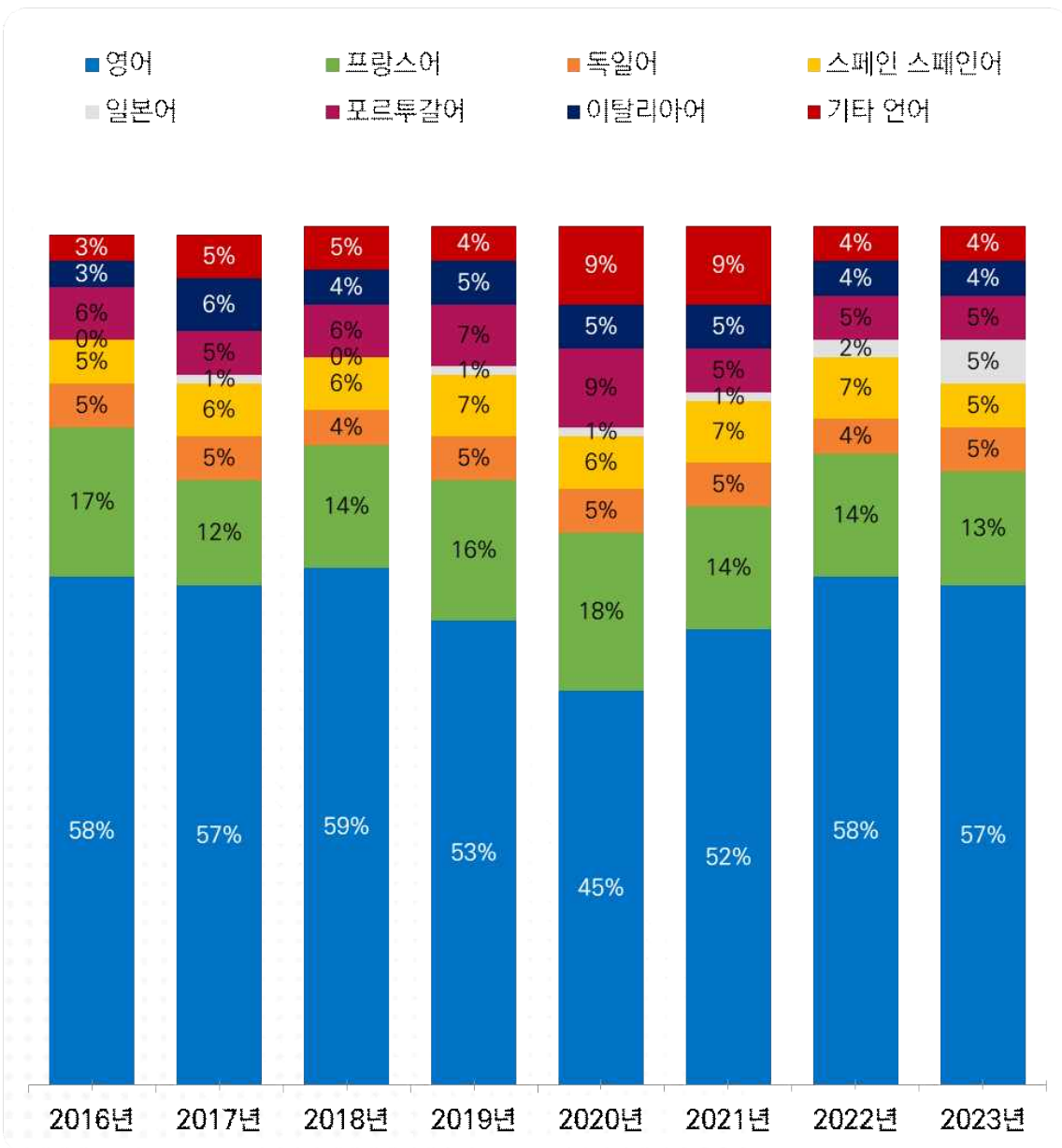
1) 도서출판산업 전자상거래그룹. 현재 17개국 90여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2) <https://bnk.kpipa.or.kr/home/v3/center/centerGuideServiceThema>

4

번역서 출간 동향



- 번역 출판의 경우 2023 년에 출간된 번역서는 2,218 종으로 전체 도서 발행 종수의 7%를 차지하였다. 번역서 발행 종수 중 57%인 1,255 종은 영어 번역이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어 번역이 284 종, 일본어 번역이 107 종, 그리고 독일어 번역이 102 종 출간되었다. 일본어 서적은 처음으로 번역서 발행 종수의 5%를 달성하였다. 한국어 번역서는 약 6 종으로 번역서 발행 종수의 약 0.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도서 협회의 연간 보고서에서는 한국어 번역 출간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에서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하였다.



|그림 2| 언어별 번역 출간 추이

## 5 종이책과 전자책 제작 현황



- 신간 발행 종수의 37%는 초판 1쇄의 발행 부수가 600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 지역을 살펴보면 91%는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인쇄되었고 7%는 중국, 나머지 2%는 기타 국가에서 인쇄되었다. 또한 신간 10종 중 3종 비율로 전자책이 함께 발행되었다.
- 독서 인구의 48%가 가장 선호하는 독서 형태로 여전히 종이책을 꼽고 있으나 2013년에는 8%, 2017년에는 10%에 불과했던 전자책 선호 비율이 2022년에는 20%, 2023년에는 22%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6 출판계의 새로운 추세: 오디오북



- 2023년에 아르헨티나의 ISBN 기구에 신규 등록된 오디오북은 총 111종이다. 번역서의 오디오북 역시 영어가 944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어가 224종으로 14%, 일본어가 89종으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 7 아르헨티나에서 출간된 한국문학의 장르



- 아르헨티나에서 번역 출간된 모든 한국문학은 소설이다. 한강과 정호라 같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힐링, 영어덜트 장르에 관한 관심이 특히 돋보인다.
- Hwarang Editorial 이 출간한 한국문학은 크게 세 종류로 고전문학, 근대문학, 현대문학으로 나뉜다. 고전문학선집에서는 홍길동전이나 방한림전, 속향전, 숙영낭자전 같은 작품을 다루었다. 근대문학 선집에서는 이상, 나혜석, 박태원 등의 작가들을 소개하였고, 현대문학 선집에서는 박민규, 정세랑, 이기호, 천운영 등의 소설을 번역 출간하였다.

## 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3년 보고서 중 아르헨티나 관련 내용



- 해당 연간 보고서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26개 국가의 15세 이상 59세 이하 25,000명을 대상으로 한류 경험에 대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조사 대상자에게 한국문학의 인지도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26.1%가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문학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답한 가운데 34.4%는 '앞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답하였으며 20.1%는 '비교적 알려져 있다.', 19.4%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멕시코 국적의 조사 대상자 35.4%와 브라질 국적의 조사 대상자 33.5%가 한국문학이 인기 있다고 답한 결과에 비하면 아르헨티나에서의 한국문학 인지도는 아직까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26 개국 전체 조사 결과의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문학의 인지도는 19.7%로 29.5%를 차지한 미국 문학에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학 작품을 읽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70.3%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2019 년의 66.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문학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인도(87.2%), 아랍에미리트(85.8%), 이집트(82.5%)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56.5%의 응답자가 한국문학을 읽어 본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한국문학을 읽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36.8%의 응답자가 이야기 전개 방식을 선택하였고 23.8%가 작중 인물들이 흥미롭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한국문학의 낮은 인지도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22.5%가 한국문학 번역서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2.2%는 낮은 번역 수준을 이유로 꼽았다. 가장 선호하는 한국문학의 종류는 다중 선택을 허용한 결과 소설이 62.2%, 건강과 음식 관련 서적이 45.8%, 역사 인문 서적이 45.6%로 나타났다.

9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아르헨티나 현지 반응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아르헨티나 언론에서 수많은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아르헨티나의 최대 신문사인 라나시온(La Nación)은 ‘채식주의자’가 아르헨티나에서 서양 언어 최초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식주의자’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수이자 한국문학 스페인어 번역가인 윤선미에 의해 2012 년에 아르헨티나 출판사 바호라루나(Bajo la luna)에서 처음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다음 해 아르헨티나 국제도서전에 한강 작가가 초대되었을 때 현지 독자들과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뜨거워 뉴스에 보도되었을 정도였다. ‘채식주의자’의 영어판이 2015 년에 출간되고 2016 년에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한강 작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스페인에서도 해당 소설을 스페인 스페인어판으로 2017 년에 출간하였고 2018 년에 스페인의 권위있는 문학상인 산 클레멘테 문학상을 수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현재 스페인어로 번역 출간된 한강의 작품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희랍어 시간’, ‘작별하지 않는다’로 모두 윤선미 번역가가 번역하였으며 아르헨티나에서도 해당 번역서들을 구매할 수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기존 한국문학 독자들은 물론 현지인들의 열렬한 관심으로 스페인어판 번역서들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 참고자료



- INFORME DE PRODUCCIÓN DEL LIBRO ARGENTINO 2023 (Cámara Argentina del Libro):  
<https://www.camaradellibro.com.ar/informe-anual-de-produccion-2023/>
-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Korea:  
<https://www.ltikorea.or.kr/en/pages/archive/translationBook.do>
- Daesan foundation:  
[https://daesan.or.kr/books.html?page=&b\\_c=3&s\\_t=](https://daesan.or.kr/books.html?page=&b_c=3&s_t=)
- Informe KOFICE Overseas Hallyu Survey 2023:  
[https://kofice.or.kr/hallyunow/vol54\\_eng/sub/s21\\_e.html](https://kofice.or.kr/hallyunow/vol54_eng/sub/s21_e.html)
- [http://m.kofice.or.kr/z99\\_include/filedown1.asp?filename=2023%20Overseas%20Hallyu%20Survey.pdf](http://m.kofice.or.kr/z99_include/filedown1.asp?filename=2023%20Overseas%20Hallyu%20Survey.pdf)





## Hwarang Editorial 대표 Nicolás Braessas을 만나보다

### INTERVIEW Q & A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화랑 출판사 대표 니콜라스입니다. 편집자와 번역가로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번역하고 있으며 열렬한 문학 애호가입니다.

**Q** 언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셨나요?

**A** 아르헨티나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스물네 살 때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한 역사와 영화에 대한 행사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접했습니다. 한국 영화에 푹 빠지면서 한국대사관의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들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Q**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문학을 공부할 때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스페인어권에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심도 깊게 공부해서 한국문학 전문 출판사를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문학이 스페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지 30년도 되지 않아서 아직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한국문학을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A** 문화적인 표현들과 문맥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가장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 작업을 할 때 제가 잘 모르는 한국 문화의 특징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한국계 아르헨티나인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Q** 가장 재미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A** 문학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다 더 풍요롭게 가꾸는 세계적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게 가장 흥미롭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새로운 트렌드의 선두주자거든요.

**Q** 지금까지 화랑 출판사에서 출간한 한국문학 작품들에 대한 반응과 판매량 순위는 어떤가요?

**A** 한국문학은 스페인어권에서 여전히 블루오션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독자들은 아직 한국문학에 흥미를 느낀 다기보다는 K-pop 이나 영화, 드라마, 한식 등 한국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더 배우려는 목적으로 한국문학을 읽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로 사람들의 관심이 확장되고 심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의 출간 도서 중 3,000 부 정도로 가장 많이 판매된 책들은 정세랑, 장류진, 백수린 등 젊은 여성 현대 작가들의 단편 선집(Laberintos de néon)과 한국의 초창기 페미니스트 문인들이라고 평가되는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근대문학 단편 선집(¿Por qué te empeñas en sufrir así?)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권의 문학을 접할 때 단편집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훌륭한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페미니즘이 확산되면서 다른 나라의 페미니즘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Q 가장 최근에 출간한 작품과 기획 의도가 무엇입니까? 독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저희 출판사의 최신 출간작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전적인 작품들은 한국문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소설의 판매량이 더 높지만 저희 출판사에서는 아르헨티나 독자층이 다양한 한국문학을 접하고 나아가 대학 차원에서 한국문학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고전 작품들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출간할 계획이 있는 작품은 무엇이며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A** 저희 출판사의 다음 출간작은 박상영의 소설 <1 차원이 되고 싶어>입니다. 최신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출판을 기획하였습니다. 한류 현상이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요즘, 박상영 작가의 다른 작품이 영화화되고 드라마로도 제작된 만큼 이번 출간작이 독자들의 이목을 끌고 도서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Hwarang Editorial 출간 도서 목록 >**

NO	발행연도	제목	원작자	번역가
1	2024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Irene Andivia Reyes, 박정효
2	2024	프롤레타리아 문학 선집	최서해, 강경애, 김남천, 윤기정, 백신애, 조명희, 권구현	Maitane Dóniz Fuentes, 박하나
3	2023	숙향전·숙영낭자전		Irma Zyanya Gil Yánez, 김춘진
4	2023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이기호	Nicolás Braessas, 주소미
5	2023	방한림전		Cammy Cho, 김윤희
6	2023	시조 선집	(중남미 시인들)	(번역서 아님)
7	2023	상속	은희경	진주진, Sebastian Parodi
8	2022	생강	천운영	윤선미
9	2022	침입자들	정혁용	Maitane Dóniz Fuentes, 박하나
10	2022	사라지는 건 여자들뿐이거든요	강화길, 손보미, 임술라, 지혜, 천희란, 최영건, 최진영, 허희정	윤선미, Nicolás Braessas, 박정효, Lucía Yamila Fernández Lucero, 김숙겸, Sosa Rivero Carlos Pedro
11	2022	사과는 잘해요	이기호	Alvaro Trigo Maldonado
12	2022	홍길동전	허균	장선용
13	2021	카스텔라	박민규	Luis Frailes Álvaro
14	2021	한국 현대 여성 문학 선집	정세랑, 장류진, 백수린	Alba Vereá Pérez, Nicolás Braessas, 윤희미, Daniel Rodríguez Cornejo, 윤선미, Maitane Dóniz Fuentes
15	2021	미스터 모노레일	김중혁	Laura Hernández, 김이은
16	2020	지구에서 한아뿐	정세랑	윤선미
17	2020	파이팅!	Nicolás Braessas	(번역서 아님)
18	2019	한국 요리	노현정	주소미
19	2019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작가들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	윤선미
20	2019	이상 시집	이상	Nicolás Braessas

(자체보고서용 판권지) 아르헨티나 콘텐츠산업 동향

아르헨티나 출판 시장과 한국 문학 출간 동향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미주유럽수출지원팀 (이윤진 팀장) 미주유럽수출지원팀 (박승준 센터장)

집필자 Nicolás Braessas, 박하나

발행인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발행일 2024년 11월 13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http://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http://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